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3개월만에 회의 개최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기호)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서면으로 대체됐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3개월 만에 진행했다. 18일 백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6월 주민자치위원회 의에서는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정 협의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 및 발열 체크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수칙을 지켰다. /진안=우태만 기자



성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진안군 성수면(면장 황상국)은 18일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2020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참여자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을 철저히 실행하고 1m이상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며 시행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행동수칙 교육을 시작으로 최근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한 전화사기, 공공기관 사칭 등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관내 기관 현장행정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국민과 소통하는 소방행정을 통해 소방안전의 시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너럴바이오 남원캠퍼스 및 남원고시원에 대한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및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대비해 간부 소방공무원들이 슬선수법 현장행정을 통해, 관내 자연재난 위험지역의 예찰활동과 선제적 예방조치로 유사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실시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결론

▲김영준(김원태 원주군청 건축과장·구정례씨 장남) 군·육주영(육동수·한미숙씨 장녀)양= 일시: 21일(일) 오후 1시, 장소: 그랜드 힐스틴 세인트를 3층(전주시 완산구 서곡 5길 22-5), 마음전하실곳 : 농협 510-01-002908

치매환자·가족 힐링 나들이

김제시치매안심센터 '사랑에 켜 프로그램' 참여자 40명, '취계팜' 방문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사랑에(愛) 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40여명과 함께 18일 김산동에 위치한 치유체험농장 취계팜으로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다. 코로나-19감염증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나들이는 자연이 어우러진 카페에서 체험과 스트레싱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나들이 프로그램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자몽수제 청 만들기 체험, 치유체험농장 투어, 꽃 비빔밥 만들기 및 꽃차 마시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나들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차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다문화가정25곳에 출산육아용품 전달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장경민)는 18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다문화가정 출산지원에 써달라며, 70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과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장경민 농협지부장이 함께했다. NH농협 순창군지부는 다문화가정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물품전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품은 턱반이, 전동손톱깎이, 합시트, 이음식 식기세트, 방수요, 마스크소독기 등 육아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에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다문화가정 25곳을 선정해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경민 지부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출산육아용품이 다문화가정의 육아 부담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에 따른 관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숙주 순창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다"며 "군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전달

고창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8일 고창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회장(회장 오교만) 등 종사자 15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도 성범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신고 절차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고, 공조 및 신고체계구축 협업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와 성범죄자 경력조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의문사항 질문을 받아 설명하여 주었다. 이에 이상주 서장은 "요즘은 사회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8일 고창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회장(회장 오교만) 등 종사자 15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17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2020년도 2차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범죄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초범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대상 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사건 1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상자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강태호 서장은 "청소년 시기에 한 순간 잘못된 소년범에 대해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법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6m*12m 크기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여성대상범죄 예방 위한 합동 순찰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생활안전계는 지난 17일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내고을안전지킴이와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여름철 여성대상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내고을안전지킴이 어르신들과 함께 방범시설물과 범죄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현재 순창군 내고을안전지킴이는 12개소 96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이번 합동순찰과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취약시간대 탄력순찰 및 지자체와 협업해 방범시설물 확충하는 등 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에 힘을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